

# 'K-에듀' 신호탄...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29일 개막

###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서 '손에 잡히는 미래교육' 펼쳐 마이클 샌델 등 석학 토론·미래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 '다채'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 전남도,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며,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막하는 박람회에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벌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섹션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남 교사 400여 명이 개발해 공개하는 2030년 미래수업 모델부터 해외 22개국, 세계적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미래교육의 실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개막날인 29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강연, 개막 특별공연 '에듀드림 K-POP 콘서트', 해군교육사령부의 국악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후 일차 별로 전시·콘퍼런스가 알차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중식 경북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내외빈과 학생 및 학부모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K-에듀'의 시작에 함께한다.

개막식에서는 박람회 대주제를 오픈형 영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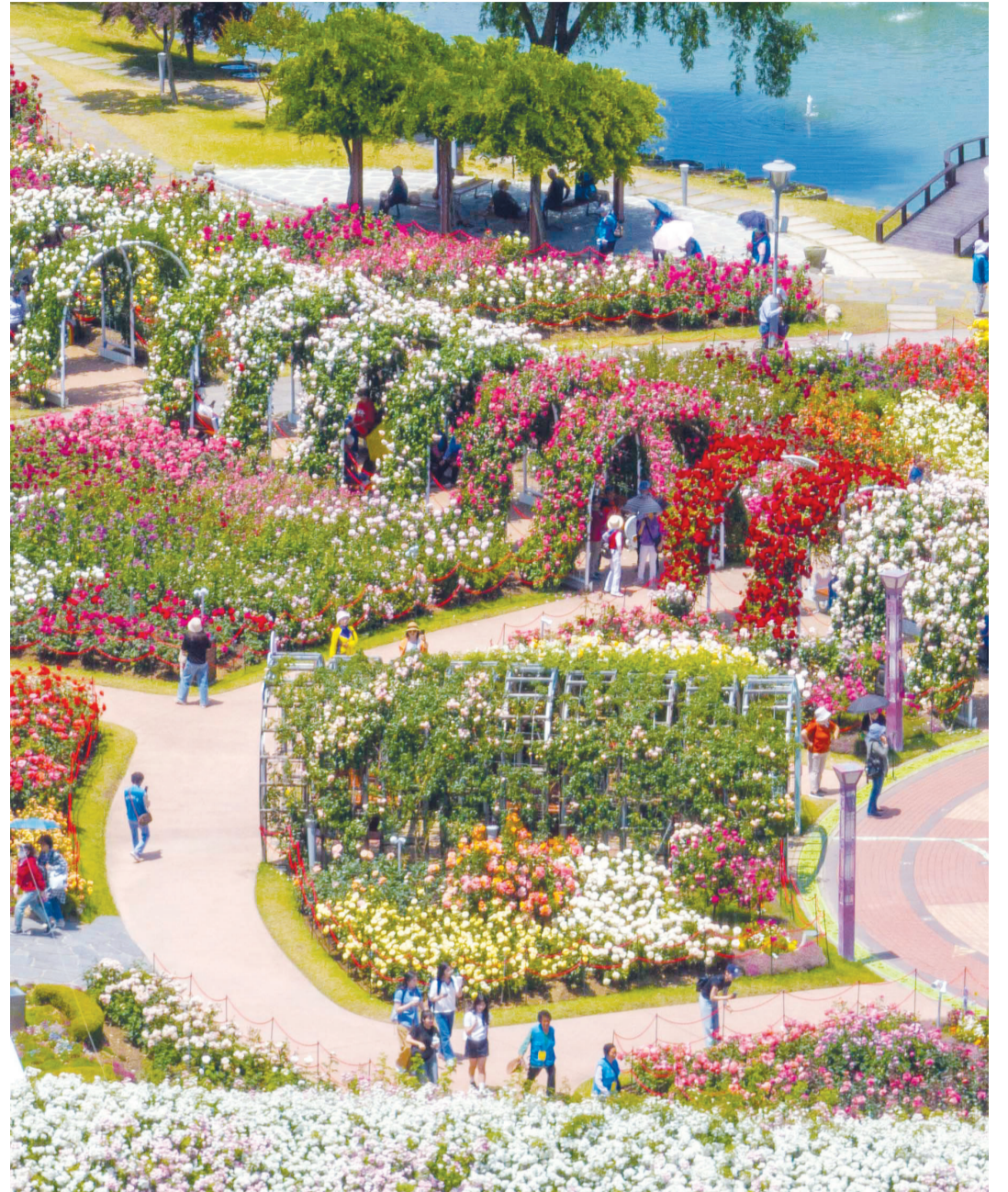
막을 연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환영사가 진행되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글로벌 교육, 전남교육이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박람회 개최 의의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주제 공연도 볼거리다. 공연은 창작 뮤지컬·무용·타악·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콘텐츠로, '공생 교육'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풀어낸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박람회 기간 국내외 석학, 22개 각국의 교육기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이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곡성 세계장미 만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 25일 곡성세계장미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신록이 우거진 숲사이로 울긋불긋 피어난 장미들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월 열사 기일에" vs "엄숙주의 넘어야"

### 조선대 '5월 대동제' 상반된 시선

5월 단체들이 27일 개막하는 조선대 '대동제 GRACIA'에 참석하겠다는 기존 입장(5월 14일자 광주일보 7면)을 반복했다.

축제 첫 날이 5월 항쟁기간 마지막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쟁한 열사들의 기일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5월 단체가 '오월 엄숙주의'에 머물지 않고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5·18을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대동제에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게스트로 참석해 지역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도 긴장하고 있고, 뉴진스를 근접거리에서 보기 위해 재학생 인증관련 물품이 중고나라에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조선대 총학생회 '시선'에 따르면 조선대 대동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광주대가에서는 5·18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조선대는 관례를 깨기로 했다.

당초 5·18유족회 등은 당일 대동제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월 단체 내부에서 비판의 지적이 일자 참석 입장을 번복했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대동제라고 해서 5·18 추모의 시간을 갖는 대동의 의미를 담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추모의 의미가 없는 단순 축제라는 점에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5·18을 기리는 방법 중 하나로 축제를 열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오월단체는 27일은 조선대 전자공학과 3학년이었던 김동수영사가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

### "오월 추모 없다" 불참

5월 유족회 등 참석 입장 번복  
기념재단, 기부금도 안 받기로  
오월어머니집, 조선대 향의 방문

### "뉴진스 온다" 필참

재학생 인증 물품 중고거래 성행  
시민들 "5·18 경직돼 안타까워"

### 조선대 총장

추모 의미 담아 축포 생략  
"내년엔 5월에 열지 않겠다"

전에 맞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날이라는 점에서 이날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난 23일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송득룡 민주동우회장은 지난 23일 조선대 향의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5월 대동제 개최에 대한 아쉬움을 이해한다는 입장 and 함께 사과를 전했다. 또 추모의 의미를 담아 이번 대동제에서 축포를 쏘지 않을 것이며 내년부터 5월에 대동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축제 섭외 계약 문제로 날짜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학생회가 굿즈 판매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했던 5·18 기념재단도 난색을 표했다.

재단은 지난 15일 조선대에 '조선대 축제 관련 5·18 기념재단 언급 자체 당부' 공문을 보냈다. 재단은 공문에서 "기부를 원하지 않으며 조선대 축제 홍보 웹포스터에 재단을 언급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축제가 시작되는 27일이 어딘 날인가를 조선대 구성원들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젊은 세대의 가슴으로 이어져야 할 5·18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엄숙하게만 5·18을 기억해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사고가 젊은이들에게도 유효할지 의문이다"면서 "오월 단체들의 경직된 입장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5·18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시작을 하루 앞둔 26일 베일에 가려졌던 게스트가 뉴진스로 확인되면서 행사 당일 조선대에 지역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재학생 관련문에 들어가기 위한 각종 거래를 원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학생임을 인증하는 팔찌를 10만원에 거래한다"는 글부터 "학생증 대여를 해줄테니 금액을 제시하라"는 거래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 수용인원이 3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조선대 대운동장에 이날 5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조선대 인근에 기동대 15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더 현대 광주" 광주 대표 제로 에너지 빌딩 되길

### 광주환경단체

광주 복합쇼핑몰 3중 세트의 하나인 '더 현대 광주'를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를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 등을 채택,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을 접목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한 빌딩을 지칭한다.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보다 최소 1.5배 이상 건립비용이 든다.

단체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로 가뭄과 산불, 홍수 피해가 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도 극심한 가뭄, 하천 범람 등 폭우사태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는 도심의 대형건축물에서 과도한 에너지 소모, 비효율적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이라고 제언의 이유를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 도시계획분야 온실가스 배출 특성 연구보고서를 보면 광주 온실가스 배출량 중 40%가 건물에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0년간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평균 1.8%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 현대 광주가 선제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곡 바로 바로 확인까지 곡!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